

찬 양



감사함으로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불안한 상황이나 내 인간적인 계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녀]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설계와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온가족] 학업, 진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요즘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말씀에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Q2. 솔로몬이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와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 나갔던 것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던 적이 있었나요?

Q3. 이번 한 주 동안, 내 안의 두려움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버텨볼 한 가지 실천은 무엇인가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9월 셋째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읽는 말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수능이나 진로 같은 눈앞의 경쟁과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성전을 짓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방식, 성전의 크기와 구조 등 말씀하신 설계대로 7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여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내 경험이나 느낌으로는 순종하기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감사함으로 다 같이

말씀봉독 열왕기상 6장 1~14절 다 같이

말씀 하나님의 설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양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